

남양건설 “코로나 방역 철저 속 완벽시공에 총력을”

마형렬 회장 등 임원진 경기 시흥 은계지구 공사현장 방문 “2개월여 남은 기간 고품질·무하자·성실시공 최선 다하자”

“공사 기간이 2개월여 남은 가운데 워드 코로나 등 일상 회복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불리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경계를 늦추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그렇듯 공사 마지막까지 안전한 환경에서 완벽 시공에 총력을 기울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공, 더욱 더 신뢰받는 건설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니다.”

호남 중견기업인 남양건설(주)은 경쟁력 강화와 올해 사업목표 달성 및 현장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위해 19일 경기도 시흥 은계지구 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공사 현장에 찾았다.

이날에는 마형렬 남양건설(주) 회장과 김광아 남진건설(주) 사장 등 남양건설 임원진이 참석했다.

남양건설 임원진은 지난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사업현장을 선정, 현장 점검을 펼쳐오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외 3개동 일원에서 진행중인 시흥 은계지구 외 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공사는 고속도로 소음 발생 저감시설 계획 등 시흥 은계지구 주거환경 개선 공사의 일환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발주했고 남진건설(51%)과 동서건설(49%)이 공동 도급으로 참여했다.

지난 2018년 10월 착공,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다.

마 회장은 이날 건설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직원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남양건설의 미래는 현장 직원들의 마음가짐과 강력한 추진력에 달려 있다”며 “투철한 애사심을 바탕으로 프로정신과 주인의식으로 무장해 완벽 시공과 수

익 극대화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마 회장은 이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사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 회장은 또 “그동안 수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도 불굴의 투지와 정진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많은 성취를 이뤄내고 있다”며 “이 같은 결과는 남양건설 임직원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똘똘 뭉쳐 움직인 결과인 만큼,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시공으로 하자 없는 공사로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958년 5월1일 창립해 올해로 창사 63주년을 맞은 남양건설은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시공’이라는 사시를 바탕으로 호남지역은 물론 충청·경상·수도·강원권 등 전국 각지에서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권을 비롯해 경기·충청·경상도 등 다수의 LH 공동주택과 양주·고양, 공주·월송, 경산·하양, 부산·장안 등에서 각각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중이며 목포종합경기장과 김해종합경기장, 창원 현동 공공주택도 시공 중이다.

이 중 불모지인 경상남도에서 턱기로 발주된 김해종합경기장 건립 공사와 창원 현동 공공주택 건립 공사 수주는 그야말로 남양건설의 저력과 우수성을 높이고 견제함을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입증했다.

올 상반기에는 광주·주월동 남양휴튼 아파트를 착공했으며 연말에는 순천지역 민간아파트 착공을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울 흥제동, 경기 구리 수택동,



고품질·무하자 완벽시공을 위해 지도점검에 나선 마형렬 남양건설(주) 회장과 김광아 남진건설(주) 사장 등 임원진이 19일 경기도 시흥 은계지구 고속도로 방음시설 설치공사 현장 방문, 철저한 안전관리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영근기자

파주 교하, 남양주 진접·별내, 청주 성화 등 전국적으로 프리미엄 자재아파트 시공 실적도 보유하고 있다.

토목 분야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자랑한다.

남양건설은 고난이도 특수교량 시공 관련 기술을 보유, 현재 문해-대곡 도로, 인천 검단IC, 새만금 켄버리 매립, 새만금지구, 웅천-소호, 영산강성산2공구 등 다수 현장에서 활발히 공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남양-별교간 국도, 강진-마량 국도, 흥농-백수간 도로 개설공사, 고금대교 연륙교 가설공사, 광주 신창택지, 경북

바이오산단 등 다수 토목공사를 마쳤다.

여기에 한강대교 남단 보행교(백년다리) 조성공사에 이어 ‘경도지구 진입도로(연륙교) 개설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위한 설계 심의에서 남양건설 컨소시엄이 경쟁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꺾고 적격자 통보를 받았다.

그동안 경도지구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시공능력평가액 전국 2위 건설사와 전남지역 중견 건설사 간 맞대결 구도로 진행되면서 전국 건설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이밖에 광주 월드컵경기장, 목포시민 문화체육센터, 대구학생문화센터, 빛고

을 시민문화회관, 광주하계U대회 수영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원주혁신도시 신사옥 등 건축과 토목분야에서 굵직한 대형 공사도 성공리에 시공했다.

이 같은 우수시공 기술력과 실적을 인정받은 남양건설은 호남 최초로 금탄산업은행(1994년)을 수훈하고 산업포장(1992년)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2008년에는 광주 운암 남양휴튼이 광주시 우수시공아파트로 선정됐다.

지난 2017년 6월 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 8개국 건설단체들의 국제행사인 ‘제43차 이포카(IFAWPCA) 한국대회’에서는 2015 광주하계U대회 수영장을

성공적으로 건설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설산업상 건축부문 은상을 수상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19년도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970년대 말 광주 운암주공임대아파트 시공 이후 전국 98여개 현장 7만여세대 규모의 국내 최대 최다 시공실적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남양건설은 올해 경영목표를 ‘수주 극대화과 안전문화 확립’으로 두고 신규 수주목표 3천700억원, 기성목표 2천200억원 달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수회기자

광은, ‘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홍보대사 위촉

격려금 2천만원 전달...본점서 사인회 등 ‘특특데이’도 가져

광주은행은 도쿄 올림픽 양궁 3관왕에 빛나는 국가대표 안산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격려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산 선수는 2020 도쿄 올림픽 양궁에서 혼성 단체전과 여자 단체전, 개인전 총목까지 대한민국 하계 올림픽 양궁 사상 첫 3관왕을 차지했으며 지난 9월 2021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도 2관왕에 올랐다.

광주 출신인 안산 선수는 문산초와 광주체육중·고교를 거쳐 현재 광주여대에 재학중이다.

안산 선수는 위촉식 후 광주은행 임직원과 본점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인회를 진행하는 등 특특데이 행사도 가졌다.

광주은행은 지역의 스포츠 발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배드민턴 남자 실업팀을 창단, 지역 배드민턴 동호인을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고향을 빛낸 안산 선수가 자랑스럽다”며 “2020 도쿄 올림픽의



영광을 발판으로 우리 지역 스포츠 인재 발굴 및 양성과 지역 체육 활성화를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수회기자

페퍼저축은, ‘금리 2.45% 정기예금’ 출시

AI 페퍼스 배구단 창단 기념

광주를 연고지로 한 호남권 유일의 여자프로배구단 AI PEPPERS(페퍼스)의 구단주 페퍼저축은행은 배구단 창단을 기념, 호남 지역민을 위한 ‘AI 페퍼스 배구사랑 회전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AI 페퍼스 배구사랑 회전정기예금’은 광주 및 전주지점의 창구에서만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광주가 연고지인 AI 페퍼스 배구단의 출범을 알리고 호남지역 주민의 금융 생활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1천억원 한도로 판매되며 이날 기준 단리 연 2.45%, 월 복리 연 2.47%의 금리

로 가입 가능하다. 상품 가입기간은 최소 24개월에서 60개월이며 회전주기 12개월이다. 회전주기 도래 시 그 당시의 회전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돼 자동 연장을 하거나 해지가 가능하다.

페퍼저축은행은 광주 및 전주지점에서 AI 페퍼스 배구사랑 회전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AI 페퍼스 배구공을 한정 증정할 계획이다.

김성수 페퍼저축은행 지점총괄본부장은 “AI 페퍼스 배구사랑 회전정기예금 출시를 통해 배구단을 응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페퍼저축은행도 호남지역 주민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과 수신 상품을 지속 기획해 배구가 광주의 대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수회기자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1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C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2 목욕기와 문풍지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3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4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4미를 품은 팥꿀 해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5일장
해남군 북평면 남창5일장
해남읍 5일장

● 장이 서는 날 ●

- 우수영5일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남창5일장 : 매월 2일, 7일로 끝나는 날
- 해남읍 5일장 : 매월 1일, 6일로 끝나는 날

직접 농가에서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과 인근 바다에서 수확한 해산물(낙지, 굴, 송어, 전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옛 시골장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해남군** 문의 : 062)650-2099